

<2016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영광의 날 메시지>

- ◆ 할렐루야!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- ◆ 오늘부터 2주 동안 섭리 세계는 각자, 그리고 부서별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을 돌리면서 <영광의 날>을 보내게 됩니다.
- ◆ <만물들>도 ‘창조주’께 영광을 돌립니다.

월명동에 가면 <나무, 돌, 물, 잔디>가
<사람>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요?

그것이 곧 ‘<만물들>이 <사람>에게 영광 돌리는 것’입니다.

<만물들>이 살아서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
곧 ‘<만물들>이 <성삼위>께 영광 돌리는 것’입니다.

사람이 그 만물들을 쓰면서 감사하다고 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것이
모두 ‘성삼위께 영광’이 됩니다.

- ◆ 사랑하는 우리들이 성삼위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?

각자 적게 받았든, 많이 받았든
‘받은 대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’입니다.

- ◆ <새 시대의 영광>은 ‘휴거의 영광’입니다.
특히나 이 영광은 ‘다른 사람들’은 못 돌립니다.

<휴거를 받고 얻은 자>만 삼위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.

고로 <이 시대에 성삼위께 돌리는 영광>은 각자도 하고,
부서별로도 하고, 특기대로도 해야 됩니다.

- ◆ 그동안 우리는 1년 동안 계속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.
<각자 맡은 사명>을 하며 영광 돌렸습니다.

그러나 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놀면서, 쉬면서, 일하면서,
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.

- ◆ 성삼위께 각종으로 감사하고, 사랑을 고백하고,
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‘노래와 춤’으로 표현하면서 영광 돌리고,
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‘기도와 대화’로 사언을 나누면서
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.

- ◆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것이니,
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, 생각나는 대로 영광 돌리면 됩니다.

- ◆ 올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잘 믿고,
잘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면서
<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것>으로 ‘새해를 출발’해야 됩니다.

- ◆ <하나님>은 늘 ‘땅’에 ‘평화’를 주시니,
<우리>도 늘 ‘하늘’앞에 ‘영광’을 돌려야 됩니다.

- ◆ <교육과 차원의 해>
<휴거 이후 3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축복의 때>
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눈에 띄고,
1년 동안 대운을 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!